

락랑박물관을 찾아서 (6)

락랑문화시기의 발전된 그릇제작기술

이러 우리는 용기류구획으로 참관을 이어갔다. 남경회 책임강사가 락랑문화시기의 용물들 가운데서 용기류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용기류들은 만든 재료에 따라 도기류와 칠기류, 금속 용기류로 구분되어 있었다. 전신된 도기류에는 고조선 후기 이른시기부터 쓰여온 화분형단지와 배부른단지, 목긴단지, 비문단지, 장과 귀잔, 접시, 보시기, 쟁반, 병 등이 있었다. 그중에

는 회색속도가 빠른 돌림판을 리용하여 만들었기때문에 가는 흠줄이 나있는것이 적지 않았다. 이것은 그릇제작기술이 높은 발전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남경회 책임강사는 이야기하였다.

유적에서 발굴된 칠기류들은 나무에 옷칠을 하여 만들었기때문에 무덤에서 오래 경과하면서 심히 손상되어 원래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것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하지만 각이한 옷색감으로 사선무늬, 식물무늬 등을 조화롭게 배합하여 짜임 구조로 장식함으로써 하나의 공예품을 런상시키는 칠기류들은 락랑문화시기부터 유풁에 술이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알수 있게 하였다.

금속 용기류 가운데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청동그릇들이었다. 청동그릇들에는 장과 굽잔, 접시, 굽접시, 바리, 대접, 쟁반, 버치, 가마 등 형태가 다양한것들이 있었는데 앞서 도기류에서 본 화분형단지, 배부른단지와 모양이 별반 다른없는 쟁기새를 가진

것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남경회 책임강사는 이것은 락랑문화창조자들이 조상전래의 정서적미감과 기호에 맞게 청동그릇을 만들어 썼다는 사실을 반영하여준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청동그릇들이 크기와 모양이 여러가지로 세분화되어있는것은 당시 청동야금업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하면서 전신대에 놓여있는 큰 그릇을 가리키며 설명해주었다. (이런 모양의 그릇을 주조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들

평양체육단의 물에뛰어들기감독

최성희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들 중에는 공훈체육인인 평양체육단의 물에뛰어들기감독 최성희도 있다.

그는 선수후비들을 선발하는데 각별한 힘을 넣고 과학적인 교수훈련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창안 도입하고 있다.

풀어올리는데 효과적인 가치 있는 연구제안들은 선수들의 기초기술동작의 숙련과 실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정보화열풍을 더욱 배가해준 전람회

공화국에서 정보산업성 정보화국의 주최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2》가 진행되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과 정보화열풍》이라는 주제 밑에 고정자료통신망과 이동자료통신망에서 가상전람회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전람회에는 인민경제 부문별 및 도급단위별뿐 아니라 수공업

개의 성, 중앙기관들과 시, 군(구역)급단위들도 많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더욱 특색 있었다.

많은 도들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가치있는 정보화성과들을 내놓았으며 남포시와 순천시, 라선시 등의 인민정권기관들과 평양시 락랑구역, 대성구역, 평안남도 문덕군 등 시, 군

올려세운 성과들이 천수백건이나 출품되었다. 한편 전람회를 통하여 다른 단위들에서 개발된 가치있는 정보화성과들을 하루 빨리 받아들이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 새로 등록

들과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며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 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이땅 일꾼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비물질문화유산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태의 예술작품 등이 종합되어 있다.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함경북도의 경성단고기국은 자기 지방의 고유한 조리방법과 특성을 잘 살리면서 식생활에 효과적인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풍습과 문화를 잘 보여주며 인민들에게 자기의것에 대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 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하여 이번 전람회에 교육, 체육, 보건, 문화예술부문의 정보화성과들과 공장, 기업소들, 성, 중앙기관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단위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2》는 온 나라에 정보화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첨단기술개발에 활력을 더해주고 정보화의 성과로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이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생각했던것보다 덕손은 교활하기 짝이 없었다. 약삭빠르게 끊어붙인 재물을 감쪽같이 빼내오곤 뽕뽕 바 꾸다니...

으로 밀려나가지 그뒤로 덕손이 란 신인교가 등등 떠서 뒤따랐다. 드디어 덕손의 행차가 개경을 바라고 동경류수관의 관청을 나선것이었다.

그때가 10년전이니 덕손이 서른살로할적이었다. 가난한 선비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글방에 다니며 열심히 글을 읽은 통검은 학식이 남달리 깊었다.

눈을 밝게 하는 마싸지

기상후 다리를 쭉 펴고 두 발가락들을 당기면서 두손바닥을 마주 대고 2~3분간 비빈다.

리운동을 2~3분간 반복한다. 6개월간 이 운동을 한 결과 돌보이 1~3.5까지 기던 46~56살사이의 사람들속에서 안경없이 바늘에 실을 꿰게 되고 신문도 볼수 있게 되었으며 협심증으로 부정맥이 오던것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사화 탐관을 단죄한 김룡검 (1)

고려 충렬왕시기인 어느 해 초봄 동경(경주)에서 있는 일이다. 신색벽에 깨어일어난 근시별감 김룡검은 초대에 불려 나오는 서둘러 옷을 찾아입었다.

도 근시별감이란 감투를 썼으니 말이다. 자기도 백성이 맘몰려 마련한 국물을 타먹는 벼슬아치중의 한사람이라는 새삼스러운 생각에서 통검은 덕손에 대한 분노를 어느 정도 누렸다.

최근 공화국의 문화성 민족유산보호국에서 2개 대상을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하였다.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가치있는 창조물

그동안 가림주루로 약행을 일삼으며 백성들에게서 빼앗아들이는 재물을 다 싣고 가려면 수습대의 마차도 모자랄 줄 알았는데...

그때가 10년전이니 덕손이 서른살로할적이었다. 가난한 선비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글방에 다니며 열심히 글을 읽은 통검은 학식이 남달리 깊었다.

이 《천마산》시는 통검이 15살 나던 해에 박연군경을 갔다가 지은 시였다. 통검은 바로 이 시로 하여 대바람에 시제라는 이름이 났었다.

속담과 뜻

◆ 공지에 빠졌을 때에는 줄행랑이 상책이다. 대항할 힘이 없어 공지에 빠졌을 때에는 기회를 봐서 도망치는것이 제일가는 계책이라는 뜻으로서 다른 방도가 없을 때에는 일시 그 자리를 피하는것이 좋은 수라고 이르는 말.

◆ 문틈에 손을 끼었다. 문틈에 손이 끼우면 아파서 그냥 있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을 열고 뺄수도 없어 난처하다는 뜻으로서: ①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는 난처한 지경에서 망설이는 것을 두고 비겨 이르는 말. ② 꼼꼼달작할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

문의를 질문

《문의》와 《질문》 단어 《문의》와 《질문》은 모두 묻는다. 물어본다는 뜻에서 같은 말이나 《문의》는 물어서 서로 의논하는것이라든가 《질문》은 알아보거나 밝히기 위하여 묻는것이라는데 차이가 있다.

◆ 문틈에 손을 끼었다. 문틈에 손이 끼우면 아파서 그냥 있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을 열고 뺄수도 없어 난처하다는 뜻으로서: ①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는 난처한 지경에서 망설이는 것을 두고 비겨 이르는 말. ② 꼼꼼달작할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

◆ 문틈에 손을 끼었다. 문틈에 손이 끼우면 아파서 그냥 있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을 열고 뺄수도 없어 난처하다는 뜻으로서: ①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는 난처한 지경에서 망설이는 것을 두고 비겨 이르는 말. ② 꼼꼼달작할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

무서운 탐욕과는 달리 두 불이 훌쩍 꺼진 덕손을 쓰아보는 통검은 다시금 불만이 솟구쳤다. 대관절 저자는 얼마만한 재물을 끊어모아야 두불이 축 늘어질까.

덕손이한때는 웅장한 대접이라지만 통검은 자기도 그자와 한동아리로 취급을 당하는것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천마산》시는 통검이 15살 나던 해에 박연군경을 갔다가 지은 시였다. 통검은 바로 이 시로 하여 대바람에 시제라는 이름이 났었다.

◆ 문틈에 손을 끼었다. 문틈에 손이 끼우면 아파서 그냥 있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을 열고 뺄수도 없어 난처하다는 뜻으로서: ①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는 난처한 지경에서 망설이는 것을 두고 비겨 이르는 말. ② 꼼꼼달작할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

◆ 문틈에 손을 끼었다. 문틈에 손이 끼우면 아파서 그냥 있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을 열고 뺄수도 없어 난처하다는 뜻으로서: ①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는 난처한 지경에서 망설이는 것을 두고 비겨 이르는 말. ② 꼼꼼달작할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